

# 영어의 통합 격이론\*

이 금 회

지배—결속 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내의 격이론(Case theory)은 Chomsky의 LGB에서 체계화되고 그 후 *Knowledge of Language*(1986)에서는 더 풍부하고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Chomsky(1986)의 격이론에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고유격<sup>1)</sup>(Inherent Case)와 구조격(Structural Case)로 이원화되어 있는 격체계를 통합하여 구조적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격이론을 보다 더 일관되게 하고 체계화시킴과 동시에 Chomsky(1986)에서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 1. Chomsky(1986)의 격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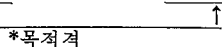
### 1.1. 구조격과 고유격의 구분

Chomsky(1986)에 제시되고 있는 격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격을 두 종류의 격, 즉 구조격과 고유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격은 구조격부여자(Structural Case-marker)인 INFL(AGR)이나 동사에 의해 그에 인접한(adjacent) 명사구에 각각 주격과 목적격이 주어진다. 구조격이 주어지는 조건은 LGB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접조건(adjacency condition)과 지배조건(government condition)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조격은 항상 S-구조(SS)에서 주어진다.

(1) ㄱ. John INFL put the book on the table.



ㄴ. \*John put on the table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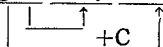


(1ㄱ)에서 구조격부여자인 INFL은 자기가 지배하고 인접해 있는 명사구 *John*에게 주격을 부여한다. 또한 동사 *put*도 자신에게 지배되고 인접해 있는 명사구인 *the table*에게 목적격

\* 이 연구는 대우재단의 1988년 박사과정 연구지원 장학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LGB에서도 고유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때의 고유격은 이중 목적어구문의 직접 목적어에 주어지는 격을 의미했다.

(i) John gave Mary a book



(i)과 같은 이중목적어구문의 경우 *Mary*는 *gave*에게서 격을 받을 수 있으나 *a book*은 *gave*와 인접(adjacent)하지 않기 때문에 *gave*로부터 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Chomsky는 이러한 경우에 *gave*는 *a book*에게 구조와 관계없이 고유격을 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고유격과 LGB에서 말하는 고유격은 다른 종류의 것임을 밝힌다.

을 부여한다. 그러나 (17)과는 대조적으로 (1L)에서는 *the book*이 구조격부여자인 동사 *put*으로부터 목적격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put*은 *the book*을 지배할지는 모르나 인접해 있지 않으므로 목적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1L)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런데 LGB에서는 전치사를 동사나 INFL과 같은 성격의 격부여자로 보고 있으나<sup>2)</sup> Chomsky (1986)에서는 전치사를 고유격부여자(Inherent Case-marker)의 범주에 넣고 있다.<sup>3)</sup>

구조격이 지배와 인접관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격인데 반해 고유격은 의미역 표시( $\theta$ -marking)에 의하여 주어진다. 영어의 고유격부여자에는 형용사, 명사, 동명사구문의 동사구(gerundive VP)와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는 사격(oblique case)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형용사, 명사, 동명사 구문의 동사구는 소유격(genitive case)을 부여한다. 즉 LGB에서는 격부여자의 자격이 없다고 보았던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동명사구문의 동사구도 격부여자(고유격부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유격은 구조격과 달리 그것이 부여되는 계층은 D-구조(DS)이고 실현(realize) 되는 계층은 S-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고유격부여자는 D-구조에서 일정한 조건, 즉 일률성조건(Uniformity Condition)이 만족되는 명사구에 고유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D-구조에서 주어진 고유격은 S-구조에서 명사구에 *of*나 *'s*와 같은 격표시 허사(dummy case-marker)가 삽입됨으로써 명사구의 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고유격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인 일률성조건이란 무엇이며 *of*나 *'s*는 어떠한 경우에 삽입되는지를 알아보자.

## 1.2. 고유격과 일률성조건

(2) 7.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SS)

L. [NP [NP the enemy] [<sub>N</sub> destruction [NP the city]]] (DS)

(27)은 (2L)과같은 D-구조에서 격을 부여받은 다음 S-구조에서 *'s*와 *of*가 삽입된 형태이다. 이 두개의 형태소가 삽입되었다는 것은 D-구조에서 각각의 명사구들이 고유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Chomsky(1986)의 격이론에 따르자면, (2L)의 핵(head)인 *destruction*은 고유격부여자로서 자신으로부터 의미역( $\theta$ -role)을 부여받고 있는 두개의 명사구 *the enemy*와 *the city*에 D-구조에서 고유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다른 고유격부여자인 형용사가 격을 부여하는 것을 보자.

(3) 7. John is uncertain of the time. (SS)

L. John is [AP [<sub>A</sub> uncertain [NP the time]]] (DS)

(37)과 같은 문장은 (3L)과 같은 D-구조에서 나온다. (3L)에서 형용사 *uncertain*은 고유격부여자로서 자신의 의미역을 받는 명사구인 *the time*에게 고유격을 부여한다. *the time*이 D-구조에서 *uncertain*으로부터 고유격을 부여받고 나면 S-구조에서 *the time*의 격을 나타내기 위해 *of*가 *the time* 앞에 삽입된다. 그 결과 (37)과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명사구문의 주어도 동사구로부터 소유격을 받는다.

(4) 7. John's reading the book disturbed me. (SS)

2) 전치사, 동사, INFL은 모두 [-N]이란 공통된 자질(feature)를 지니고 있다. LGB에서는 [-N] 자질을 지니고 있는 자를 격부여자로 보았다.

3) Chomsky(1986)에서 말하는 전치사에는 보문소(complementizer: COMP) *for*도 포함되어 있다.

ㄴ.  $[_{NP} [_{NP} \text{John}] [_{VP} \text{reading the book}]]$  disturbed me. (DS)<sup>4)</sup>

(47)과 같이 동명사구문이 있는 문장의 경우  $[_{VP} \text{reading the book}]$ 의 주어인 *John*의 소유격은 어떻게 부여되는가를 보자.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고유격부여자에는 동명사구문의 동사구가 있다. 이 동사구는 그것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따라서 D-구조에서 동사구  $[_{VP} \text{reading the book}]$ 은 *John*에게 고유적인 소유격을 부여한다. 그러고나면 S-구조에서 *John*에 's가 삽입되어 *John's*와 같은 소유격 형태의 명사구가 나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어의 고유격부여자는 명사, 형용사, 동명사구문의 동사구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의미역을 받는 명사구에게 D-구조에서 고유격을 부여하고 이 고유격은 S-구조에서 *of*나 's가 삽입됨에 따라 형태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of*나 's가 아무데서나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of*-삽입규칙과 's-삽입규칙이 필요하다.

(5) *of*-삽입규칙(*of*-insertion rule)

$[_{\alpha} \alpha \text{—NP}]$ 와 같은 환경에서 *of*를 삽입하라. 여기서  $\alpha = [+N]$  (=N, A)

(6) 's-삽입규칙('s-insertion rule)

$[_{NP} NP \text{—}\alpha]$ 와 같은 환경에서 's를 삽입하라. 여기서  $\alpha = \bar{N}$ , VP

(5)와 (6)에서 *of*나 's가 삽입되는 환경을 제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7) ㄱ. \*There was  $[_{VP} [_{\bar{V}} [_{V} \text{killed}] \text{of } [_{NP} \text{John}]]]$

ㄴ. \*It  $[_{VP} [_{\bar{V}} [_{V} \text{seems}] \text{of } [_{P} \text{John to be happy}]]]$

ㄷ. \*It is  $[_{AP} [_{\bar{A}} [_{A} \text{certain}] \text{of } [_{IP} \text{John to win}]]]$

ㄹ. \* $[_{NP} \text{the } [_{\bar{N}} [_{N} \text{belief}] \text{of } [_{IP} \text{John to be the winner}]]]$

위 문장들에서 (7ㄱ)의 *killed*, (7ㄴ)의 *seems*, (7ㄷ)의 *certain*, (7ㄹ)의 *belief*는 각각 그것의 보충어(complement)인 *John*, *John to be happy*, *John to win*, *John to be the winner*에 의미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S-구조에서 이들과 각각의 보충어 사이에 *of*가 삽입되었다고 한다면 (7)의 문장들이 나온다. 그러나 *of*-삽입규칙의 환경을 보면 이들이 잘못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of*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는  $[_{\bar{N}} N\text{—NP}]$ 이거나  $[_{\bar{A}} A\text{—NP}]$ 이다. 그런데 (7)의 문장들의 구조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7)' ㄱ.  $[_{\bar{V}} V\text{—NP}]$

ㄴ.  $[_{\bar{V}} V\text{—IP}]$

ㄷ.  $[_{\bar{A}} A\text{—IP}]$

ㄹ.  $[_{\bar{N}} N\text{—IP}]$

(7)'의 구조들을 보면 어느 것도  $[_{\bar{N}} N\text{—NP}]$ 나  $[_{\bar{A}} A\text{—NP}]$ 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7)의 문장중 그 어느 것도 *of*가 삽입될 경우 비문법적일 수밖에 없다.

4) Chomsky(1986)에서는 동명사구문을 NP로 보고 (4ㄴ)과 같은 구조로 나타내고 있는데, 동명사구문을 왜 NP로 봐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동명사구문을 NP로 볼 것인가 아니면 CP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많았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Barriers*에서 Chomsky는 동명사구문을 CP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Knowledge of Language*에서는 NP로 보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유격부여자가 명사구에 고유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고유격부여자가 고유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격부여자와 격을 받는 명사구 사이에 의미역표시( $\theta$ -marking)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국한된다고 했다.

(8) ㄱ. [e] destruction the city (DS)

ㄴ. the city's destruction  $t_i$  (SS)

(8ㄱ)과 같은 D-구조에서 명사인 *destruction*이 그것의 보충어인 *the city*에 의미역을 주는 관계에 있으므로 *the city*는 고유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S-구조로 옮겨가면서 명사구 *the city*는 주어 자리로 이동해 가고 그 자리에는 흔적(trace)을 남기게 된다. 이 경우 *destruction*은  $t_i$ 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the city*에 의미역을 부여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the city*라는 명사구는 (*the city*,  $t$ )라는 연쇄(chain)의 한 구성원(member)로서 그것이 속해있는 연쇄의 마지막 구성원인  $t$ 가 의미역을 받음으로써 연쇄조건(chain condition)이 충족된 연쇄의 첫번째 구성원이 된다. 이 경우 *the city*에 's라는 소유격이 S-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the city*가 속해 있는 연쇄가 고유격부여자인 *destruction*으로부터 의미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고유격부여자와 고유격을 받는 명사구 사이의 의미역관계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률성조건(Uniformity Condition)이다.

(9) 일률성조건

$\alpha$ 가 고유격부여자인 경우,  $\alpha$ 는 어떤 명사구가 이끄는 연쇄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명사구에 고유격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일률성조건이란 고유격부여자와 의미역표시자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유격부여자와 고유격을 받는 명사구와의 관계를 의미역을 매개로 하는 일률성조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유격부여의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고유격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유격이 부여될 경우, 일률성조건이 그러한 문장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보자.

(10) ㄱ.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  
+ $\theta$ , +IC

ㄴ. \*there's destruction of the city<sup>5)</sup>

↑  
- $\theta$ , +IC

(10ㄱ)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던대로 *destruction*이 *the enemy*라는 명사구에 의미역과 고유격을 동시에 주고 있으므로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10ㄴ)에서는 *destruction*이 *there*에게 의미역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s로 나타나는 고유격을 주고 있으므로 이것은 일률성조건을 어기게 되어 비문법적인 결과가 된다. 이와같이 일률성조건을 적용하여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11) ㄱ. There arrived a man in the room.

ㄴ. \*there's [<sub>VP</sub> arriving a man in the room]

↑  
- $\theta$ , +IC

5) *there*나 *it*와 같은 허사가 나타나는 자리는 의미역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 $\bar{\theta}$ -position)이다.

- (12) ㄱ. There have been too much rain last night.  
 ㄴ. \*there's [<sub>VP</sub> having been too much rain last night]  
           ↑          |  
         -θ, +IC
- (13) ㄱ. It seems that John is intelligent.  
 ㄴ. \*its [<sub>VP</sub> seeming that John is intelligent]  
           ↑          |  
         -θ, +IC
- (14) ㄱ. John<sub>i</sub> seems [<sub>t<sub>i</sub></sub> to be intelligent]  
 ㄴ. \*John<sub>i</sub>'s [<sub>VP</sub> seeming [<sub>IP</sub> t<sub>i</sub> to be intelligent]]  
           ↑          |          ↑          |  
         +IC          -θ

(11)~(13)의 ㄴ문장들의 경우 모두 다 동사구 (VP)가 주어 자리의 명사구에 의미역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격이 주어져 소유격이 나타나 있으므로 모두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14ㄴ)의 경우는 *John*이 이끄는 연쇄인 (*John, t*)에게 의미역을 주는 자는 [<sub>VP</sub> be intelligent]이지 [<sub>VP</sub> seeming [<sub>IP</sub> t<sub>i</sub> to be intelligent]]가 아니다. 따라서 (14ㄴ)은 일률성 조건을 어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률성 조건은 고유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의미역과 고유격과의 관계를 적절히 포착하여 고유격부여를 제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성 조건에는 몇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 다음에서는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2. 일률성조건의 문제점

일률성조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Chomsky(1986)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격 부여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고유격부여자 뿐만 아니라 구조격부여자를 포함한 모든 격부여자가 핵(head=X<sup>0</sup>)임에 반해 고유격부여자 가운데 하나인 동명사구문의 동사구만은 유일하게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이다. 이것은 이론의 체계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Sohn(1987)에서는 동명사구문의 경우 동사구가 고유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ing*가 고유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일률성조건을 수정한다. 수정된 일률성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률성조건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앞에서 일률성조건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잘 설명해줄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15)에서는 오히려 문법적인 문장이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 (15) ㄱ. John<sub>i</sub>'s [<sub>VP</sub> being likely [<sub>t<sub>i</sub></sub> to [win]]]  
           ↑          |          ↑          |  
         -θ, +IC          +θ
- ㄴ. John<sub>i</sub>'s [<sub>VP</sub> being appointed t<sub>i</sub>]  
           ↑          |          ↑          |  
         -θ, +IC          +θ

(15ㄱ)의 경우(*John, t*) 연쇄에 의미역을 주는 것은 동사구 *being likely to win* 이 아니라 하위절의동사구 *win*이다. 즉, (*John, t*) 연쇄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자와 고유격을 부여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사구 *being likely to win*은 *John*에게 고유격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John*이 이끄는 연쇄에 의미역을 주지 못하므로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이처럼

(15ㄱ)은 일률성조건을 어기에도 불구하고 비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다. (15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구 *being appointed*  $t_1$ 가 *John*에게 고유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John*이 이끄는 연쇄(*John, t*)는 동사 *appointed*로 부터 의미역을 받고 있으므로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15ㄴ) 역시 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15)의 현상은 일률성조건이 무언가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살펴보자. Chomsky(1986)에 따르면, 보문소(complementizer: COMP) *for*는 고유격부여자로서 반드시 일률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문소 *for*는 항상 일률성 조건을 어기고 있다.<sup>6)</sup>

(16) [For [John to [be the winner]]] is unlikely.

I would prefer [for [John to [win the race]]]

(16)의 문장들에서 명사구 *John*은 보문소 *for*로부터 고유격을 받고있으나 의미역은 하절의 동사구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둘 다 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보문소 *for*는 고유격부여자이지만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for*로부터 격을 부여받는 명사구는 항상 다른 요소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보문소 *for*는 항상 일률성조건을 어길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3종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ohn(1987)에서는 수정일률성조건(Revised Uniformity Condition)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수정일률성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 3. 수정일률성조건과 그 문제점

#### (17) 수정일률성조건

$\alpha$ 가 고유격부여자이면, (i)이거나 (ii)이어야 한다.

(i)  $\alpha$ 가 의미역표시자인 경우,  $\alpha$ 는 어떤 명사구가 이끄는 연쇄에 자신이 의미역을 줄 때만 그 명사구에 격을 부여한다. ( $\alpha=N, A,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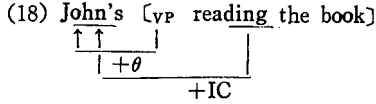
(ii)  $\alpha$ 가 의미역표시자가 아닌 경우,  $\alpha$ 는 어떤 명사구가 이끄는 연쇄가(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든) 의미역을 받을 때만 그 명사구에 격을 부여한다. ( $\alpha=-ing, for$ )

(17i)에서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의 고유격부여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일률성조건과 똑같은 내용이다. 수정된 부분은 (17ii)인데, 우선 동명사구문의 주어에 격을 부여하는 자를 동사구로 보지 않고 *-ing*로 보고 있다. *-ing*를 일종의 핵으로 보고 이 *-ing*가 명사구에 고유격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sup>7)</sup> 그런데 *-ing*는 의미역표시를 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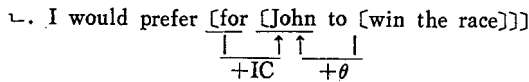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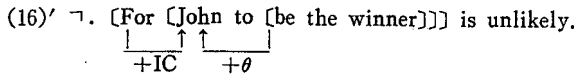
6) Chomsky(1986)이 전치사를 고유격부여자로 보는 것은 전치사의 범주 내에 보문소 *for*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문소 *for*는 그것 자체가 의미역을 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for*로부터 격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의미역을 지니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Chomsky(1986)은 보문소 *for*를 포함한 모든 전치사를 고유격부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보문소인 *for*를 전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또 보문소 *for*가 고유격부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7) Sohn(1987)에서는 *-ing*를 핵으로 보고 이 핵이 격부여자라고 규정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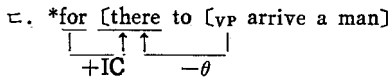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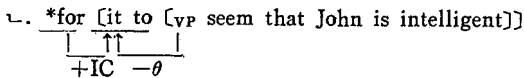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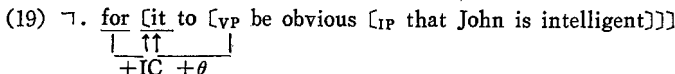
자가 아니므로 *-ing*로부터 고유격을 부여받는 명사구는 다른 요소로부터 의미역을 받기만 하면 수정일률성조건은 만족시키게 된다.



이전에는 동사구 전체가 *John*에게 의미역도 주고 고유격도 준다고 보아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미역만 동사구가 줄 뿐, 고유격은 *-ing*가 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18)은 수정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일하게 동명사구문의 경우에만 핵이 아닌 동사구가 격부여자가 되는 어색한 개념을 없앨 수 있게 된다. (17ii)의 또 한가지 특징은 보문소 *for*의 경우도 의미역과 고유격을 주는 자가 같다고 보지 않고 이 두가지를 분리함으로써 설명력을 높히려 한다. Chomsky(1986)에서는 보문소 *for*도 일률성조건을 준수해야만 하는 고유격표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for*는 모든 경우에 일률성조건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Sohn(1987)에서는 수정일률성조건을 *for*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for*는 *-ing*나 마찬가지로 의미역표시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for*로부터 고유격을 부여받는 명사구는 다른 어떤 요소로부터이든 의미역을 받기만 하면 수정일률성조건이 만족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16)의 문장들은 일률성조건은 어기지만 수정일률성조건은 만족시키게 된다.



*John*이 *for*로부터 고유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for*가 아닌 다른 요소인 하위절의 동사구로부터 의미역을 받고 있어 수정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정일률성조건에 따르면 보문소 *for*에 의하여 주어지는 고유격에 대하여 일률성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19)와 같은 문장들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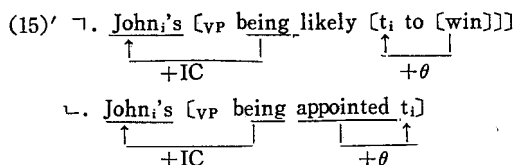


(19)의 세 문장들은 모두 *for-to*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ㄱ문장은 문법적이고 ㄴ과 ㄷ문장은 비문법적이다. 그런데 일률성조건으로는 ㄱ과 ㄴ, ㄷ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 어떤 범주의 핵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를테면 (18)과 같은 동명사구문에서 *-ing*가 고유격을 부여하는 핵이라고 하더라도 *-ing*에 대한 범주의 규정은 없이 그냥 동사구(VP)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뒷부분에서 논의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ing*를 일종의 명사로 보고자 한다.

모두 다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일률성조건에 의하면 (18ㄱ)은 수정일률성조건을 만족시켜 문법적인 문장인데 반하여 (18ㄴ)과 (18ㄷ)은 수정일률성조건에 위배되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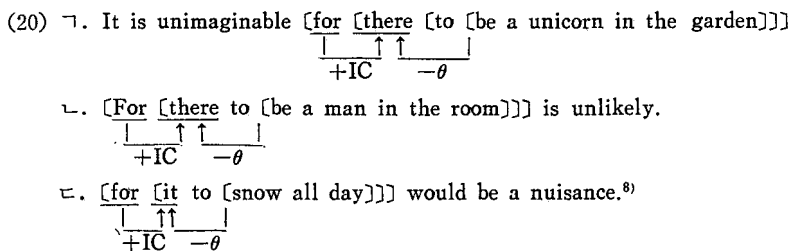
또한 수정일률성조건에 의하면, 앞서 일률성조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던 (15)도 설명되어질 수 있다.



(15ㄴ)에서 *John*이 이끄는 연쇄인 (*John, t*)는 *-ing*로 부터는 고유격을 받고 의미역은 하위절의 동사구나 동사로부터 받고 있어 수정일률성조건을 만족시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수정일률성조건에도 문제점이 있다.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보면, 개념적인 문제점(*conceptual problem*)과 경험적인 문제점(*empirical problem*)이다. 우선 개념적인 문제점이란, 수정일률성조건은 이미 일률성조건의 기본 개념을 상실하고 있다. Chomsky(1986)에서 제시된 일률성조건의 기본 정신은 격부여자와 의미역표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정일률성조건은 *for*나 *-ing*의 경우, 격부여자와 의미역표시자가 분리되었다. 즉, 의미역표시자의 자격이 없는 *for*나 *-ing*를 무리하게 일률성조건의 개념에 맞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률성조건 자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Chomsky(1986)에서는 고유격부여자가 고유격을 주기 위해서는 일률성조건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는 있으나 사실상 *for*의 경우는 항상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률성조건이나 수정일률성조건은 모두 이른바 고유격부여의 조건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일률성조건, 또는 수정일률성조건을 없애버림으로써 개념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경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첫번째 문제점으로, 앞서 우리는 보문소의 경우 항상 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지만, 수정일률성조건은 만족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8) 날씨를 나타내는 허사 *it*는 일반적으로 논항(argument)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Chomsky는 LGB에서 날씨의 *it*가 유사논항(quasi-argument)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i) It sometimes rains after [PRO snowing].

(i)의 문장에서 PRO의 통제자(controller)는 주어인 *it*이다. 그런데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따르면 통제자는 반드시 논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it*도 통제자이므로 논항이어야 한다는 결론



(20)의 문장들은 모두 다 일률성조건, 또는 수정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for*가 고유격을 부여하는 명사구들은 모두 의미역을 받지 않는 허사(expletive)들이다. 그런데도 위 문장들은 모두 문법적이다. 즉, 일률성조건도 수정일률성조건도 (20)의 문장들을 설명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경험적인 문제점이 있다. Chomsky(1986)에서나 Sohn(1987)에서는 명사구에 격을 나타내는 격표시 허사(dummy case-marker)인 's나 *of*는 S-구조에서 삽입되며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 요소로 단지 격을 표시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그러나 구문에 따라서는 's나 *of*가 S-구조에서 삽입된 것이 아니라 D-구조에서부터 생성되어, S-구조에서 격을 표시해 주는 역할 이외의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문의 경우, 's나 *of*가 S-구조에서 삽입되었다고 본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S-구조에서 삽입된 's나 *of*도 있으나 기저부에서 생성된(base-generated) 's나 *of*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저부에서 생성된 's나 *of*는 어떤 경우인가를 살펴보자.

#### 4. 기저부에서 생성된 's와 *of*

##### 4.1. 기저부에서 생성된 's

명사구 내의 소유격 주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 (21) ㄱ. the barbarian's destruction of the city  
       ↳ Helen's reliance on her friends  
 (22) ㄱ. the city<sub>i</sub>'s destruction t<sub>i</sub>  
       ↳ the play<sub>i</sub>'s performance t<sub>i</sub>  
 (23) ㄱ. Mary's store  
       ↳ the pig's tail

(21)과 (22)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문으로서 핵명사(head noun)인 *destruction*, *reliance*, *performance*는 그것과 연관된 동사를 각각 가지고 있으며(*destroy*, *rely*, *perform*) 지정어(specifier) 자리에 오는 명사구어나 보충어(complement) 자리에 오는 명사구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명사들이다.<sup>9)</sup> 그러므로 Chomsky(1986)의 격이론에 따르자면, D-구조에서 고유격을 부여하고(일률성조건을 준수하므로) S-구조에서는 그 고유격을 나타내 주는 형태소인 's가 삽입되어 (21)이나 (22)의 구조로 된다.<sup>10)</sup> 그러나 (23)의 경우는 *store*나 *tail*이 각각 *Mary*나 *the pig*에 의미역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store*나 *tail*과 같은 명사는 그 명

에 이른다. 그러나 낱씨의 *it*는 완전한 논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 때문에 Chomsky는 유사논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it*는 여전히 의미역을 받지 못한다.

9) (21)이나 (22)와 같은 명사구들은 거기에 대응되는 문장이 있다.

(21)' ㄱ. The barbarian destroyed the city.

      ↳ Helen relies on her friends.

(22)' ㄱ. The city<sub>i</sub> was destroyed t<sub>i</sub>.

      ↳ The play<sub>i</sub> was performed t<sub>i</sub>.

10) (22)의 경우는 *the city*나 *the play*가 이끄는 연쇄인(*the city*, t), (*the play*, t)가 의미역이 있는 연쇄이므로 그 핵인 *the city*나 *the play*에 's가 삽입될 수 있다.

사와 연관된 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며 *destruction*의 경우는 파괴하는 행위자와 파괴당하는 대상이 있어 그것에 해당되는 일정한 의미역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store*나 *tail*과 같은 명사는 그것의 주어에 어떤 의미역을 준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Mary*와 *store*의 관계나 *the pig*와 *tail*의 관계는 's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고 봐야 한다. 즉, 's가 양자간에는 소유의 혹은 다른 여러 의미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derson(1984)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23)에 나타나는 's는 (21)이나 (22)에 나타나는 's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서 (21)과 (22)의 's가 S-구조에서 삽입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사적인 형태소인데 반해 (23)의 's는 핵명사와 지정어 자리에 있는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나타내 주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23)의 's는 D-구조에서 생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s가 D-구조에서 생성된 것인지 혹은 S-구조에서 삽입된 것인지를 여부는 다음의 문장들에서처럼 판별될 수 있다.

- (24) ㄱ. *Mary's store*  
 ㄴ. *This store is Mary's*  
 (25) ㄱ. *Helen's reliance on friends*  
 ㄴ. \**That reliance on friends was Helen's.*  
 (26) ㄱ. *the barbarian's destruction of the city*  
 ㄴ. \**That destruction of the city was the barbarian's.*

*store*와 같은 명사는 (24 ㄴ)과 같은 구조가 가능한데 반하여 *reliance*나 *destruction*과 같은 명사는 (25 ㄴ)이나 (26 ㄴ)과 같은 구조가 불가능하다. 즉, (24 ㄱ)에 나타나는 *Mary's*의 's나 (24 ㄴ)에 나타나는 *Mary's*의 's는 D-구조에서 생성된, 소유의 의미를 지니는 형태소인데 반하여 (25 ㄱ)이나 (26 ㄱ)의 경우는 *Helen's*나 *the barbarian's*의 's가 S-구조에서 삽입된 형태소이므로 (25 ㄴ)이나 (26 ㄴ)처럼 소유의 의미를 지니는 's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같은 형태소인 's이지만 D-구조에서 생성된 's와 S-구조에서 삽입된 's를 구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picture*와 같은 명사의 경우에 주어와 *picture* 사이의 관계가 어떤 내용의 관계인지를 규명해 주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 (27) ㄱ. *John's picture* (John이 소유하고 있는 그림)



- ㄴ. *John's picture* (John이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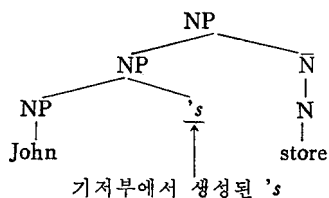


- ㄷ. *John*<sub>i</sub>'s *picture* *t*<sub>i</sub> (John을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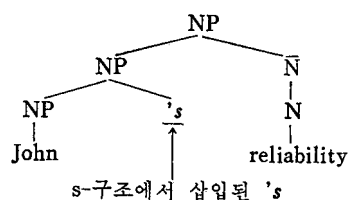


똑 같은 명사구인 *John's picture*가 *picture*의 의미역표시 여부에 따라 (27)의 세 문장과 같이 그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27 ㄴ)이나 (27 ㄷ)의 경우는 *picture*가 주어나 또는 목적어에 의미역을 주지만 (27 ㄱ)의 경우 *picture*는 *John*에게 아무런 의미역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John*과 *picture* 사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은 's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에 근거하여 Anderson(1984)는 명사구의 주어에 나타나는 's를 두 종류로 분류하여 (28)과 같이 표시해 주고 있다.

(28) ㄱ. Mary's store



ㄴ. John's reliability



(28)과 같이 's를 구분하면, Chomsky(1986)의 격이론이 설명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Chomsky(1986)에 따르면 의미역을 부여하는 명사만이 D-구조에서 고유격을 부여하고(=일률성조건) 고유격이 부여된 명사구에만 S-구조에서 's가 삽입된다고 한다. 그러면 (21)과 (22)의 구문은 설명이 가능하나 (23)의 구문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23)에서는 *store*가 *Mary*에게 의미역을 주지 못하므로 S-구조에서 's가 삽입될 수 없어 결국 \**Mary store*와 같은 잘못된 명사구가 도출된다. 이처럼 *store*와 같은 성격의 명사는 Chomsky(1986)의 격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3)과같은 문장의 경우, 's는 기저부에서 생성되었으며 이 's가 *John*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는<sup>11)</sup> Anderson(1984)의 주장을 따르고자 하며, 아울러 Chomsky(1986)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률성조건도 없어야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 4.2. 기저부에서 생성된 *of*

's가 기저부에서 생성된 경우가 있듯이, *of*역시 S-구조에서 삽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저부에서 생성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자.

(29) ㄱ. the biography of Truman

ㄴ. Truman's biography

(30) ㄱ. the history of Canada

ㄴ. Canada's history

(31) ㄱ. the statue of Washington

ㄴ. Washington's statue

(32) ㄱ. [e] destruction the city

ㄴ. the city<sub>i</sub>'s destruction t<sub>i</sub>

(33) ㄱ. [e] solution that problem

ㄴ. that problem<sub>i</sub>'s solution t<sub>i</sub>

(34) ㄱ. [e] enjoyment the play

ㄴ. \*the play<sub>i</sub>'s enjoyment t<sub>i</sub>

(35) ㄱ. [e] knowledge that fact

ㄴ. \*that fact<sub>i</sub>'s knowledge t<sub>i</sub>

(29)~(31)에 나오는 명사들(*biography*, *history*, *statue*)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derived

11) 만약에 's가 *John*에게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John*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의미역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John*은 의미역기준( $\theta$ -criterion)을 여기게 되므로 's가 논항인 *John*에게 의미역을 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s는 격부여자의 역할 이외에 의미역 표시자( $\theta$ -marker)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

nominal)이 아니며 (32)~(35)의 명사들(*destruction, solution, enjoyment, knowledge*)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들이다. 그런데 (29)~(31)의 명사구는 소유격 구분이 가능한데 반하여 (32)~(35)의 명사구는 핵명사에 따라서 소유격 구분이 가능한 경우((32)와 (33))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34)와 (35))도 있다.

같은 파생명사형이면서도 *destruction*이나 *solution*은 명사구인상(NP raising)이 가능한 반면 *enjoyment*나 *knowledge*는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하다. (32)나 (33)처럼 명사구인상이 가능한 파생명사형으로는 *performance, definition, translation, concealment, exposure* 등이 있으며, (34)나 (35)처럼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한 파생명사형으로는 *avoidance, discussion, pursuit, evasion* 등이 있다.

- (36) ㄱ. the play<sub>i</sub>'s performance t<sub>i</sub>  
 ㄴ. that word<sub>i</sub>'s definition t<sub>i</sub>  
 ㄷ. this book<sub>i</sub>'s translation t<sub>i</sub>
- (37) ㄱ. the knife<sub>i</sub>'s concealment t<sub>i</sub>  
 ㄴ. the corruption<sub>i</sub>'s exposure t<sub>i</sub>
- (38) ㄱ. avoidance of the cliff  
 ㄴ. \*the cliff<sub>i</sub>'s avoidance t<sub>i</sub>
- (39) ㄱ. discussion of the book  
 ㄴ. \*the book<sub>i</sub>'s discussion t<sub>i</sub>
- (40) ㄱ. pursuit of the animal  
 ㄴ. \*the animal<sub>i</sub>'s pursuit t<sub>i</sub>

(36)과 (37)의 경우는 명사구인상이 가능하며 (38)~(40)의 경우는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하다. Anderson(1978)은 이와 같은 명사구인상의 가능여부는 그 명사구의 핵인 명사의 성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핵명사에 해당되는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그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affect) 경우에만 명사구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9)에서는 *destruction*의 결과 도시가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나 (31)의 *enjoyment*와 같은 명사는 즐기는 행위와 연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서 “바뀌거나”(changed), “이동하거나”(moved), “상태가 변화되거나”(altered in status), “창조되는”(created) 경우를 들 수 있다. (36)의 *performance, definition, translation*은 “창조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37)의 *concealment*나 *exposure*는 “상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34)와 (35)의 경우나 (38)~(40)의 경우는 목적어가 명사의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34)와 (35)나 (38)~(40)처럼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으로 명사구인상을 막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다. 즉, 보충어 자리에 명사구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S-구조에서 그 앞에 *of*가 삽입되어 격표시자의 역할을 하고, 만약 보충어 자리의 명사구가 지정어 자리로 인상되면 *of*는 삽입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이동해간 명사구에 's가 삽입된다는 Chomsky(1986)의 설명을 따르면 명사구인상이 가능한 구문과 불가능한 구문의 차이점을 전혀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런데 Anderson(1978)은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한 구문의 경우는 D-구조에서부터 보충어 자리에 명사구가 아닌 전치사구(PP)가 있다고 본다. 즉, (34)나 (35)의 D-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34)' ㄱ. [e] enjoyment [PP of the play] (DS)

- └. \*the play<sub>i</sub>'s enjoyment [PP of t<sub>i</sub>] (SS)
- (35) ㄱ. [e] knowledge [PP of that fact] (DS)
- └. \*that fact<sub>i</sub>'s knowledge [PP of t<sub>i</sub>] (SS)

(34ㄱ)'이나 (35ㄱ)'처럼 D-구조에서 *of*가 있다고 볼 경우<sup>12)</sup> 명사구가 이동해 간 다음 그 자리에 남는 흔적 *t*는 공범주원리 (Empty Category Principle: ECP)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치사인 *of*는 고유지배자 (proper governor)가 아니므로<sup>13)</sup> 흔적 *t*를 고유지배할 수 없어 (34└)'이나 (35└)'은 공범주원리를 어기게 되어 결국 비문법적이 된다. Chomsky (1986)에서는 *of*가 S-구조에서 삽입된 격표시 허사일뿐 다른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4)나 (35)처럼 명사구인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of*가 D-구조에서 생성했다고 보는 것이 공범주원리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기저부에서 생성된 전치사의 경우는 *of*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41) ㄱ. admiration [PP for the president]
- └. \*the president<sub>i</sub>'s admiration [PP for t<sub>i</sub>]
- (42) ㄱ. accord [PP with Panama]
- └. \*Panama<sub>i</sub>'s accord [PP with t<sub>i</sub>]
- (43) ㄱ. reliance [PP on this leader]
- └. \*this leader<sub>i</sub>'s reliance [PP on t<sub>i</sub>]
- (44) ㄱ. allegiance [PP to the university]
- └. \*the university<sub>i</sub>'s allegiance [PP to t<sub>i</sub>]

(41)~(44)의 전치사들 (*for*, *with*, *on*, *to*)은 모두 D-구조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위의 문장들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바로 흔적 *t*가 전치사로부터 고유지배를 받지 못하여 공범주원리를 어기게 때문이다. (41)~(44)에 나오는 전치사들이 D-구조에서 생성되었다고 본다면 (34)나 (35)의 *of* 역시 D-구조에서 생성되었다고 봄이 이상하지 않다. 즉, 전치사 *of*는 Chomsky (1986)이 주장하듯 S-구조에서 격표시만을 위하여 삽입되는 것도 있지만 (34)나 (35)처럼 D-구조에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of*가 D-구조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S-구조에서 삽입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보아야만 (31)~(35)의 구문들이 설명이 가능해 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s와 *of*가 S-구조에서 삽입되었다고 보는 Cho-

12) 그런데 D-구조는 의미있는 요소만을 나타내는 구조 (pure representation of GF- $\theta$ )이므로 이런 경우 *of*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

13) 전치사가 고유지배자가 아님은 다음 문장들에서도 설명이 되어진다.

- (i) \*The strike<sub>i</sub> was referred briefly to t<sub>i</sub>.
- (ii) The strike was [<sub>v</sub> referred to] t<sub>i</sub>.
- (iii) \*The strike<sub>i</sub>'s brief reference [PP to t<sub>i</sub>].

(ii)와 같은 수동구문이 가능한 것은 전치가 *to*가 *referred*라는 동사와 함께 재분석 (reanalysis) 되어 *referred to* 전체가 하나의 동사로서 흔적 *t*를 고유지배하여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i)의 경우는 부사 *briefly*가 *referred*와 *to* 사이에 있어 재분석이 불가능하여 전치사 *to*가 *t*를 고유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i)은 공범주원리를 어기게 되어 비문법적이 된다. (iii)과 같은 명사구의 경우는 명사 *reference*와 전치사 *to*는 재분석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t*가 고유지배되지 않아 공범주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상의 문장들에서 볼 때도 전치사가 고유지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msky(1986)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나 of가 D-구조에서 생성된다고 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homsky(1986)의 격이론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 i) 구조격과 고유격의 구분은 없다. 즉, 영어의 모든 격은 구조격이다.
  - ii) 따라서 고유격에 적용되던 일률성 조건도 없어진다.
  - iii) 모든 격은 S-구조에서만 주어진다.
  - iv)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동명사구문의 동사구는 격부여자가 아니다.
- 그러면 다음에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 5. 고유격과 일률성조건의 폐지

Chomsky(1986)에서는 고유격을 부여하던 명사, 형용사, 동사구는 더 이상 격부여자가 아니며 명사구 혹은 동명사구문 내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S-구조에서 's로부터 구조격을 부여받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구는 전치사 of로부터 구조격을 받는다. 즉, 이전에는 격부여자가 아니라 단순히 격을 나타내 주는(realize) 역할만 했던 's나 of를 구조격부여자로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s나 of는 S-구조에서 삽입된 경우도 있지만 D-구조에서부터 생성된 경우도 있다'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이던 's나 of는 S-구조에서 격을 부여한다. 앞서 4에서 살펴본 것처럼 's나 of가 D-구조에서부터 생성된 경우는 S-구조에서 격을 부여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S-구조에서 삽입되는 경우는 기존의 of-삽입규칙이나 's-삽입규칙과는 다른 내용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of-삽입규칙부터 살펴보자.

#### 5.1. of-삽입규칙

##### (45) of-삽입규칙

환경이 [<sub>S</sub> α-NP]인 경우 of를 삽입하라. 이 경우 (i) α는 [+N] (=N, A)이고 (ii) NP는 반드시 의미역표시된 연쇄(θ-marked chain)의 핵이어야 한다.

(45)는 Chomsky(1986)에 제시된 of-삽입규칙 (2)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45)(ii)가 그 부분이다. (45)(ii)는 종전에 일률성조건이 해주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률성조건을 of-삽입규칙 혹은 's-삽입규칙에 흡수해버림으로써 앞에서 보았던 일률성조건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체계가 보다 더 간편해질 수 있다. 그러면 of-삽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46) ㄱ. the destruction of the city

↳. [<sub>NP</sub> the [<sub>N</sub> [<sub>N</sub> destruction] [<sub>NP</sub> the city]]]
   
+θ

(47) ㄱ. John is proud of his mother.

↳. john is [<sub>AP</sub> [<sub>A</sub> proud] [<sub>NP</sub> his mother]]]
   
+θ

(48) ㄱ. \*It is certain of John to win.

↳. It is [<sub>AP</sub> [<sub>A</sub> certain] [<sub>IP</sub> John to win]]]
   
+θ

(49) ㄱ. \*the belief of John to be the winner.

↳. [<sub>NP</sub> the [<sub>N</sub> [<sub>N</sub> belief] [<sub>IP</sub> John to be the winner]]]
   
+θ

(46L)과 (47L)은 *of*-삽입규칙에 맞는 구문이므로 *of*가 삽입되어 (46Г)과 (47Г)의 S-구조가 도출된다. (46L)의 구조를 보면 [ $\bar{N}$  N \_\_\_ NP]로서 *of*-삽입규칙에 맞으며 또한 NP인 *the city*가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므로 *of*가 삽입될 수 있다. (47L)도 [ $\bar{A}$  A \_\_\_ NP] 구문으로 *of*-삽입규칙의 환경에 맞으며 *his mother*가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므로 *of*-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48)과 (49)는 *of*-삽입이 불가능하다. (48L)에서 형용사 *certain*의 보충어인 [IP John to win]은 의미역이 있기는 하나 전체의 구조가 [ $\bar{A}$  A \_\_\_ IP]가 되어 *of*-삽입규칙의 환경에 맞지 않다. 또한 (49L)의 [IP John to be the winner]도 의미역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의 구조가 [ $\bar{N}$  N \_\_\_ IP]이므로 *of*-삽입규칙의 환경에 맞지 않아 *of*를 삽입할 수 없다. 이처럼 *of*가 삽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of*가 삽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하고 *of* 다음에 오는 명사구가 의미역을 부여받은 연쇄의 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다음 문장들의 문법성 여부 역시 설명이 가능해 진다.

- (50) Г. John's bribery of the official  
|-----|  
+θ  
 L. \*John's bribe of the official  
|-----|  
-θ  
 D. John's bribe to the official  
|-----|  
+θ

(50Г)의 *bribery*는 “뇌물을 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그 보충어에 의미역을 부여하지만 (50L)의 *bribe*는 “뇌물”을 나타내는 명사로 그 보충어에 의미역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50Г)과 (50L)은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50Г)에서는 *of*-삽입이 가능하고 (50L)에서는 불가능하다. (50L)과 같은 구문이 문법적이라면 (50D)처럼 D-구조에서부터 전치사 *to*가 생성되어 *the official*에게 의미역도 주고 격도 부여해 줘야 한다. 다음에서는 's-삽입에 대하여 살펴보자.

5.2. 's-삽입규칙

(51) 환경이 [ $N_1$ ,  $NP_2$  \_\_\_  $\bar{N}$ ]<sup>14)</sup>인 경우 's를 삽입하라. 여기서  $NP_2$ 는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어야 한다.

's-삽입규칙을 (51)과 같이 정해 놓고 그 적용여부를 살펴보자. 's가 삽입되는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명사구 내의 주어에 's가 붙는 경우와 동명사구문 내의 주어에 's가 붙는 경우가 그것이다. 편의상 이 두가지 경우를 분리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5.2.1. 명사구의 주어

- (52) Г.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L. [ $N_1$ , [ $NP_2$  the enemy] [ $\bar{N}$  [N destruction] [ $NP$  the city]]]  
|-----|  
+θ

- (53) Г. the city<sub>i</sub>'s destruction t<sub>i</sub>

14) 's-삽입규칙 (51)은 Chomsky(1986)의 's-삽입규칙 (3)과는 환경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3)에서는 α ( $\bar{N}$  혹은 VP)로 되어 있던 부분이 (51)에서는  $\bar{N}$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VP도  $\bar{N}$ 의 범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5.2.2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_{NP_1} [_{NP_2} \text{the city}] [_N [_N \text{destruction}] \underline{t_i}]]$   
 $+ \theta$

(52↳)은 's-삽입규칙의 환경인  $[_{NP_1} NP_2 \text{---} \bar{N}]$ 에 맞고  $NP_2$ 에 해당하는 *the enemy*는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므로 's의 삽입이 가능하다. (53↳) 역시 's-삽입규칙의 환경에 맞고 *the city*는 (*the city*, *t*) 연쇄의 핵인데 이 연쇄는 의미역표시된 연쇄이므로 's가 삽입된다.

### 5.2.2. 동명사구문의 소유격 주어

동명사구문의 주어는 소유격을 지닐 수도 있고 목적격을 지닐 수도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되는 것은 소유격 주어이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주어가 목적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아울러 동명사가 아닌 현재분사가 들어 있는 구문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54) ㄱ. I hate them making noise.

↳. I hate  $[_{CP} [_{IP} \text{them} [_I \text{-ing} [_{VP} \text{make noise}]]]]$ .

(55) ㄱ. They making noise is a horrible nuisance.

↳.  $[_{CP} [_{IP} \text{They} [_I \text{-ing} [_{VP} \text{make noise}]]]]$  is a horrible nuisance.<sup>15)</sup>

(56) ㄱ. John having left Boston, Mary grew depressed.

↳.  $[_{IP} \text{John} [_I \text{-ing} [_{VP} \text{have left Boston}]]]$ , Mary grew depressed.

위에 나오는 (54)~(56)의 문장들은 모두 소유격구문문의 동명사구문과는 다른 종류의 구문들이다. 따라서 's-삽입규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에서 V+ing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어떻게 격을 부여받는 지가 문제가 된다. Reuland(1983)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그는 -ing를 INFL의 일종으로 보고 그 자질은 [-tense, +AGR]이라 하여 -ing가 격을 부여할 능력이 있는 범주로 보고 있다.<sup>16)</sup> 그래서 (54)의 경우 동사 *hate*가 하위절(CP) 전체에 목적격을 주면 이 격이 IP로 삼투되고(percolate) 또 다시 IP의 핵인 -ing로 내려가 결국 -ing가 *them*에게 목적격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52)와 같은 경우는 동사 *is*에 들어있는 INFL이 주절인 CP에 주격을 주면 이것은 IP의 핵인 -ing로 내려가서 -ing가 *they*에게 주격을 준다. 즉, (54)와 (55)의 경우는 격삼투(case percolation)이란 개념으로 격부여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데 (56)과 같은 분사구문의 경우는 -ing가 *John*에게 직접 목적격을 부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왜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부여하는지는 규명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격, 혹은 주격을 주어로 가지는 동명사구문은 그 범주가 CP로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소유격주어를 지니는 동명사구문의 경우는 그 범주가 CP가 아닌 NP로 보고자 한다. 소유격 동명사구문의 경우 그 범주가 과연 CP나 아니면 NP나에 대한 논쟁은 많이 있었으나 그 어느 한 쪽도 완벽하게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소유격 동명사구문은 NP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격이론의 체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유격 동명사구문이 NP라는 증거를 들어보자.

15) (54)나 (55)의 동명사구문을 과연 CP로 봐야 하는가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Reuland(1983)의 이론체계에 맞는 구조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목적격을 주어로 택하는 동명사구문 역시 격이론으로 설명해야만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16) Reuland(1983)에 의하면 -ing가 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AGR]이라는 자질 때문이다. 그러나 -ing가 [+AGR]이라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은 의심의 여지가 많은 주장이다.



첫째로, 소유격 동명사구문에는 보문소(COMP) 자리가 없다. 보문소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적어도 CP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 (57) ㄱ. \*I don't remember who<sub>i</sub> (our) visiting t<sub>i</sub>.
- ㄴ. \*I wonder where<sub>i</sub> (our) going t<sub>i</sub>.
- (58) ㄱ. The table on which you should put your coat is in the next room.
- ㄴ. The table on which to put your coat is in the next room.
- ㄷ. \*The table on which putting your coat is in the next room.

(57)과 (58)에서 보듯이 소유격 동명사구문의 경우는 보문소 자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소유격 동명사구문은 다른 CP 범주의 구문들과는 달리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 (59) We depend on { Linda's solving the problem.
- [NP Linda's solution of the problem].
- \*[CP (that) Linda will solve the problem].

(59)에서 보듯이 동명사구문 *Linda's solving the problem*은 CP라기 보다는 NP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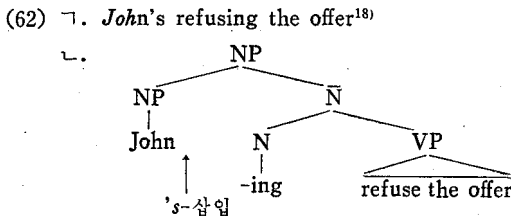
셋째로, 주어 자리에 있는 CP범주의 구문은 외치(extraposition)이 가능한 반면에 소유격 동명사구문은 명사구나 마찬가지로 외치가 불가능하다.

- (60) It amazed me { \*John's singing the aria.
- \*[NP John's rendition of the aria].
- [CP that John sang the aria].

넷째로, CP가 시제절의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없는데 반하여 소유격 동명사구문은 시제절의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sup>17)</sup>

- (61) ㄱ. Did [John's kissing Mary] surprise you?
- ㄴ. \*Did [CP that John kissed Mary] surprise you?

이상과 같은 증거에 근거하여 소유격 동명사구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즉, *-ing*는 INFL이 아니라 *John refuses the offer*와 같은 문장을 명사구조로 전환시키는 역

17) 이러한 주장은 Stowell(1981)의 격저항원리(Case Resistance Principle)과도 일치한다. CRP는 “절은 격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Stowell(1981)이나 Lee(1985)를 참조하기 바람.

18) (62 ㄴ)의 구조는 일반 명사구의 행위명사형(action nominal)을 포함하고 있는 명사구의 구조와

할을 하는 일종의 명사로 보자는 것이다. 소유격 동명사구문을 (62L)과 같은 구조로 파악하면 동명사구문의 주어인 명사구에 's가 삽입되는 것은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63) ㄱ. John's reading the book.

ㄴ. [NP<sub>1</sub> [NP<sub>2</sub> John] [ $\bar{N}$  -ing [VP read the book]]]  
 + $\theta$  ↑  
 's-삽입

(64) ㄱ. John's being likely to win

ㄴ. [NP<sub>1</sub> [NP<sub>2</sub> John] [ $\bar{N}$  -ing [VP be likely [IP t<sub>i</sub> to win]]]] (John, t)  
 ↑  
 's-삽입

(63)에서 John은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며 전체의 구조가 [NP<sub>1</sub> NP<sub>2</sub>  $\bar{N}$ ]로서 's-삽입 규칙의 환경과 일치하므로 John에 's가 붙게 된다. (64)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삽입 규칙의 환경과 일치하고 John은 의미역표시된 연쇄 (John, t)의 핵이므로 's-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s-삽입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65) ㄱ. \*there's arriving a man in the room

ㄴ. [NP<sub>1</sub> [NP<sub>2</sub> there] [ $\bar{N}$  -ing [VP arrive a man in the room]]]  
 - $\theta$

(65)는 's-삽입 규칙의 환경에는 맞지만 there가 의미역이 없는 명사구이므로 's가 삽입될 수 없다. 이처럼 's가 삽입되는 조건으로서 소유격이 될 명사구가 반드시 의미역표시된 연쇄의 핵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66ㄱ)과 (66L)의 문법성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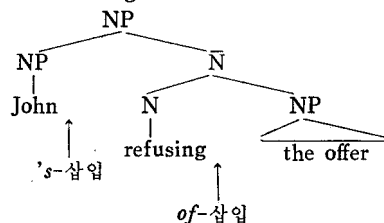
(66) ㄱ. \*its [ $\bar{N}$  -ing [VP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 $\theta$

ㄴ. its [ $\bar{N}$  -ing [VP be obvious that John is intelligent]]  
 + $\th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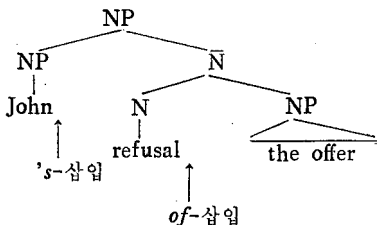
(66ㄱ)과 (66L)은 구조상으로는 동일하여 's-삽입 규칙의 환경에 둘 다 맞지만 (66ㄱ)의 it

유사하나 다른점은, 핵인 명사가 -ing라는 점과 명사의 보충어가 동사구라는 점이다. (i)과 (ii)의 구조를 참조하기 바람.

(i) John's refusing of the offer



(ii) John's refusal of the o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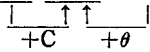
는 의미역이 없는 명사구이며 (66L)의 *it*는 의미역이 있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66L)의 경우만 's-삽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s와 *of*가 반드시 S-구조에서만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D-구조에서 생성될 수도 있음을 보았고, 아울러 일률성조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어의 모든 격은 구조격이며 따라서 일률성조건은 없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종전에는 일률성조건이 해주던 역할을 *of*-삽입규칙이나 's-삽입규칙에서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어의 모든 격은 구조격이라는 주장이 완전해지려면 Chomsky(1986)에서 고유격으로 분류되었던 보문소 *for*와 전치사가 고유격부여자가 아니라 구조격부여자임을 밝혀야 한다. 이제 다음에서는 보문소 *for*와 전치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6. 보문소 *for*

Chomsky(1986)은 보문소 *for*도 일종의 전치사로 간주하고 모든 전치사는 고유격부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보문소 *for*도 전치사도 모두 다 구조격부여자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보문소 *for*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서도 보았듯이 보문소 *for*는 항상 일률성조건(혹은 수정일률성조건)을 어기고 있다.

(67) ㄱ. [For [John to [win the race]]] is cer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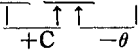


ㄴ. [for [Mary<sub>i</sub> to [be loved t<sub>i</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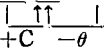


(67)에서 보면 *for*로부터 고유격을 부여받는 명사구는 항상 *for*가 아닌 다른 요소로부터 의미역을 받고 있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Chomsky(1986)이 *for*를 구조격부여자가 아닌 고유격 부여자라는 이유는 *for*로부터 고유격을 부여받는 자는 반드시 의미역이 있는 명사구에 한정되는 현상 때문이다.

(68) ㄱ. \*For there to [arrive a man in the room]...



ㄴ. \*for it to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68)에서 보면 *there*나 *it*가 의미역이 없는 허사인데도 *for*가 고유격을 부여하므로 비문법적이다. Chomsky(1986)이 보문소 *for*를 고유격부여자로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68)과 같은 허사가 들어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68)의 문장이 과연 고유격부여조건을 어겨서 비문법적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비문법적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there*-구문에 나타나는 *arrive*와 같은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나 *it*-구문에 들어 있는 *seem*과 같은 인상동사(raising verb)는 (68)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에도 *to*-부정사의 형태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to arrive*나, 혹은 *to seem*과 같은 부정사의

19) (67L)의 경우는 (*Mary*, *t*)라는 연쇄에서 *t*가 의미역이 있으므로 *Mary*는 의미역 표시된 연쇄의 핵이 되어 고유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어휘적인 조건 (lexical condition)이 *arrive*나 *seem*과 같은 동사에는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69)의 경우에서 *to arrive*, 혹은 *to seem*이 비문법적인 요소라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비문법적인 문장인 (69)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69) ㄱ. \*I believe [there to [arrive a man in the room]]  

$$\begin{array}{c} | \quad \uparrow \\ \hline +C \end{array}$$

ㄴ. \*I believe [it to [seem that John is intelligent]]  

$$\begin{array}{c} | \quad \uparrow \\ \hline +C \end{array}$$

(69)의 동사 *believe*는 구조격부여자이기 때문에 *there*나 *it*가 의미역이 없는 허사이더라도 그것에다 격을 부여할 수 있다. 즉, (69)의 문장들은 격이론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데도 비문법적이다. 이것은 (68)과 (69) 모두 격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 *arrive*나 *seem*과 같은 동사의 어휘특성으로 인한 현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문소 *for*를 구조격부여자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보문소 *for*를 구조격부여자로 보게 되면 앞에서 일률성조건 혹은 수정일률성조건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23)과 같은 문장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23) ㄱ. It is unimaginable [for [there to [be a unicorn in the garden]]]  

$$\begin{array}{c} | \quad \uparrow \\ \hline +SC \end{array}$$

ㄴ. [For [it to snow all day]] would be a nuisance.  

$$\begin{array}{c} | \quad \uparrow \\ \hline +SC \end{array}$$

(23ㄱ)과 (23ㄴ)에서 *for*를 고유격부여자로 보면 이 두 문장은 항상 일률성조건 혹은 수정일률성조건을 어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장은 문법적이다. 그러나 *for*를 구조격부여자로 보면 아무런 문제없이 문법적인 문장임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격부여자는 의미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배하고 인접하기만 하면 격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Chomsky(1986)에서 역시 고유격부여자로 분류되었던 전치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 7. 전치사

Chomsky(1986)은 전치사가 항상 그 보충어에 의미역과 격을 동시에 부여하므로 고유격부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치사로부터 격을 부여받는 자가 그 전치사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71) ㄱ. I approve of [there being a literary exam for political candidate]  

$$\begin{array}{c} | \quad \uparrow \\ \hline +C/-\theta \end{array}$$

20) (68)이나 (69)와는 달리 같은 *there*-구문일지라도 동사가 존재를 나타내는 *be* 동사일 경우는 *to*-부정사 구문이 허용된다. 즉, 존재의 *there*구문(existential *there*-construction)의 경우는 *to*-부정사가 허용된다.

(i) [For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is unlikely.

(ii) I believe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i)과 (ii)의 경우도 *there*가 *for*나 *believe*로부터 구조격을 받는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 I was worried about [it being certain that Charlie was lying]  
 $\begin{array}{c} | \quad \uparrow \\ +C/-\theta \end{array}$

(71)의 *of*나 *about*는 각각 *there*와 *it*에 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미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일률성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전치사를 구조격부여자로 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더구나 *there*나 *it*와 같은 의미역이 없는 명사구에 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률성조건은 물론이고 수정일률성조건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치사도 다른 격부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조격부여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격부여자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전치사를 구조격부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72) \*[PP in [NP e]]

(72)와 같은 구문이 영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in*이 전치사로서 구조격부여자한테 그 격을 받을 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in*은 허가(license)되지 못하여 결국 허가조건(Licensing Condition)을 어기기 때문이다. 고유격은 그 격을 받을 명사구의 의미역 존재여부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에, 구조격은 구조가 맞는 경우에 반드시 주어져야만 구조격부여자가 허가조건을 어기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전치사를 고유격부여자로 간주한다면 (72)와 같은 비문법적인 구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전치사도 구조격부여자라 봄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 모든 격부여자들은 구조격부여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 구조격들은 모두 S-구조에서 부여된다.

## 8. 결 론

지금까지 주장한 바를 요약해 보면, 우선 영어에는 고유격과 구조격의 구분이 필요없으며 모든 격은 구조격으로서 S-구조에서만 부여된다. 따라서 Chomsky(1986)에서 고유격부여조건으로 제시된 일률성조건, 또는 Sohn(1987)에서 제시된 수정일률성조건은 필요없게 된다. 그리고 고유격부여자로 간주되었던 명사, 형용사, 동명사구문의 동사구는 더 이상 격부여자가 아니며 *of*나 *'s*가 실질적인 구조격부여자이다. 이와 같은 격부여 체계를 세움으로써 문법을 보다 더 간편화하고 일관성있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homsky(1986)의 격이론에서나 Sohn(1987)의 격이론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률성조건이나 수정일률성조건을 기존의 *of*-삽입규칙이나 *'s*-삽입규칙에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합 격이론체계가 더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영어 자료에 한정되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격이론이 과연 영어에만 한정된 이론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핵심문법(core grammar)의 일부분인지는 앞으로 영어이외의 많은 언어자료들을 검토해 보아야만 규명될 수 있는 문제다.

## 참 고 문 헌

- Anderson, M. (1978) "NP Pre-posing in Noun Phrases," MIT ms.  
 Anderson, M. (1984) "Prenominal Genitive NPs," *The Linguistic Review* 3, 1-24.

- Baker, C.L. (1985) "Syntactic Affixation and English Gerunds" in *Proceedings of the West Coast Conference of Formal Linguistics* 4, 1-11.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 P. Rosenbaum ed.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MIT Press, Cambridge,
- Lee, K-H (1985) *On Case-Marking of Clausal Arguments in English*, MA Thesis, SNU.
- Reuland, E. (1983) "Governing -ing," *Linguistic Inquiry* 14:1, 101-136.
- Sohn, K.-W. (1987) *Case Assignment and Thematic Structure in English*, MA Thesis, SNU.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